

임진왜란기 청주성 전투 의병장의 격문에 나타난 창의 이념과 문학적 특성

박 정 민*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청주성 전투 격문의 논리와 수사 |
| II. 청주성 전투와 관련 격문 | IV. 결론 |

< 국문 초록 >

청주의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임진왜란 때 왜적에서 함락된 청주성을 탈환한 것이며, 그 중심에는 의병장 趙憲(1544~1592)·朴春茂(?~?)가 있다. 이 두 사람은 土亭 李之菡(1517~1578)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인물로서, 유학의 이념을 구국 행위의 실천을 통해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 儒者로서 정규군이 빼앗긴 청주성을 의병을 조직하여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斯學이라 불리우는 유학적 이념과 斯文이라 불리우는 유학자들의 연대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며, 분산된 유학자들을 집중시키고 조직할 수 있었던 수단은 檄文이었다.

필자는 조헌과 박춘무의 격문을 중심으로 격문에 드러난 항쟁의 이념과 선동의 전략을 고찰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항쟁의 명분과 의의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붕괴되던 관군 주도의 국가 방어태세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절실함, 그것이 청주성 전투의 격문에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subac412@hanmail.net

는 여실히 녹아 있다. 침략 전쟁의 부당성과 왜국의 무도함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의병장의 역사의식과 맞물려 격문에 형상화됨으로써 민중에게 항쟁의 명분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결집된 비정규군은 결국 임진왜란 발발 이후 陸戰에서 최초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둘째, 표현적 측면에서 임란기 청주 지역의 격문에는 선동과 설득의 수사가 두루 구비되어 있다. 격문은 선전과 선동의 목적을 지니는 글로서 명백한 질서 의식과 강렬한 수호 의지를 표출하는 글이다. 이에 격문은 필자의 의식에 내재된 결연한 의지를 독자들에게 이양시키고, 그들의 가슴속에 구국의 열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도록 설득시킨다. 역사 전고의 표현을 빌어 깊은 인상을 남기는 用事의 수법과 반복과 정연한 구조의 설정을 통한 긴장감 고조의 수사법 등은 격문의 선동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지극히 의도된 설정이다.

본 연구는 격문의 문학성에 주목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한반도 전쟁문학 연구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檄文, 선동, 전쟁문학, 임진왜란, 청주성 전투, 趙憲, 朴春茂.

I. 서론

청주의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임진왜란 때 왜적에서 함락된 청주성을 탈환한 것이다. 청주성 전투의 의미는 임진왜란의 陸戰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이며, 의병·승병·향병으로 구성된 비정규군이 일본의 정규군을 물리쳤다는 점, 이후의 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¹⁾ 청주성 탈환의 쾌거를 이끈 주역은 승병장 靈圭大師(?~?)와 의병장 趙憲(1544~1592)·朴春茂(?~?)이다. 특히 그중 조현과 박춘무는 土亭 李之菡(1517~1578)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인물로서, 유학의 이념을 구국 행위의 실천을 통해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 정규군이 빼앗긴 청주성을 儒者인 조현과 박춘무가 의병을 조직하여 탈환할 수 있

1)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1997).

었던 것은 斯學이라 불리우는 유학적 이념과 斯文이라 불리우는 유학자들의 연대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산된 유학자들을 집중시키고 조직할 수 있었던 수단은 檄文이었다. 임진왜란기의 거병은 격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격문의 역할과 비중은 큰 것이었다. 이에 2020년 8월 개최되는 한국고전한문학회의 '청주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는 기획주제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청주성 전투의 의병장 중봉 조헌과 화천당 박춘무의 격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중봉 조헌과 화천당 박춘무에 대한 저간의 연구는 주로 사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창의와 참전의 정황에 대한 실증적 검토²⁾, 주로 철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구국 의식에 대한 이념적 탐색³⁾, 주로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중봉의 문학 세계에 대한 심미적 고찰⁴⁾로 대별할 수 있다. 조헌과 박춘무의 창의 이념과 선동의 논리 및 기술을 격문을 통해 고찰하려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간과하였던 격문의 문학성에 주목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전쟁문학 연구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청주성 전투와 관련 격문

청주는 임진왜란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그것은 청주가 왜군이 湖右 지역의 진출로로 삼았던 전략상 요충지였으며, 1592년 8월 1일 의병·승군·관군이 연합하여 왜군을 격퇴시킨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청주는 일본군의 주요 북상로 가운데 하나인 右路에 위치하였기에 5월에 이미 청주성이 왜군에게 함락되었다. 7월 29일에 영규 대사가 지휘한 군사들이 청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자, 인접 지역

2) 박영철(1996) ; 곽호제(1998) ; 한기동(1998) ; 김강식(2010) ; 유동호(2018) 등.

3) 주용성(2009) ; 최영성(2011) 등.

4) 박병헌(1992) 등.

의 의병 부대도 참여하게 되었으니 조헌과 박춘무의 부대가 대표적 예이다. 이때 조헌은 의병 1,600여 명을 이끌고 서문을 맡고, 박춘무는 의병 1,000여 명을 이끌고 남문 밖 남들에 주둔하면서 참전하였다. 그리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8월 2일에 청주성을 탈환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니, 청주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조선병은 왜군의 진출로와 수송로를 막아 호서·호남 지방을 보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⁵⁾

청주성 탈환의 주역은 승병단을 이끈 公州의 靈圭大師의병단을 이끈 沃川의 趙憲·淸州의 朴春茂 등이 손꼽히는데, 그중 의병장의 선발은 학문적 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래 宋濟民(1549~1602)의 격문에서 그 단서를 살펴보자.

삼가 고한다. 나 宋濟民이 지난달 23일에 의병장을 따라 水原山城에 당도하여 5일 동안 머물렀는데, 서울에 있는 적이 아직 치성하고 淸州·鎭川 등지에서 떠돌아다니는 적 역시 날뛰는데 외로운 군사로 깊이 들어가면 군량 보급로가 막힐 염려가 있었다. 때문에 온 진중이 모두 鄙生을 추천하여 충청도로 가서 의병을 모집하여 길을 막고 있는 적을 소탕하고 구원 오는 군사를 통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와서 충청도의 士友들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하여 20일 사이에 정예병 2천여 명을 얻어서 공론에 따라 前 都事 趙憲을 추대하여 左義大將을 삼아 黃澗·永同 이하의 적을 방어하게 하고, 前 察訪 朴春茂를 右義大將으로 삼아 錦江 적을 방어하게 하려 하였다.⁶⁾

송제민은 전라도 羅州에서 창의한 金千鎰(1537~1593)의 종사관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의 격문에서는 충청도의 의병을 모집하여 조헌을 좌의 대장으로 삼고 박춘무를 우의대장으로 삼는 것을 방비의 전략으로 삼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충청도 의병의 통솔자로 지목된 조헌과 박춘무는 송제민과 함께 토정 이지함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로, 청년시절 '歲

5) 김강식(2010), 119~120면. 참조.

6) 趙慶男, 『亂中雜錄』 卷1, 「壬辰上」, 1592年 7月 10日.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조하였다.

寒契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어려울 때 서로 돕기를 도모하고 학문적으로 연대하던 사이였다. 토정 이지함의 문하에서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존송을 통해 맺어진 인적 유대 관계가 倡義라는 국난 극복을 실현하는 중심점이 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에서 관군과 벼슬아치들의 무능이 노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임란기 의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으며, 의병의 결집을 매개한 수단으로서 격문은 역사적·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영규대사의 경우에도 격문을 돌려 800여 명의 승군을 조직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격문은 일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조헌과 박춘무의 모병 활동 및 격문 자료를 살펴보자.

조헌의 경우, 청주·옥천·공주 등지에서 4차에 걸쳐 의병을 모집하였다. 1차 창의는 1592년 5월 3일 청주에서 도모하였는데, 격문을 돌려 병졸을 모집하였으나 모병은 실패로 돌아갔다.(해당 격문은 逸失되어 『중봉집』 권13에 제목만 남아 있다.) 2차 모집은 옥천에서 조헌의 문인 金節·金籥·朴忠儉 등과 함께 도모하였는데, 鄉兵을 소집하여 報恩 車嶺에서 북상하는 왜적을 퇴각시키는 전공을 세웠다. 3차 모집은 1592년 6월 공주에서 문인 李瑀·金敬伯·全承業 및 충청도 순찰사 윤선각과 공모하였으나 실패하였다.(6월 12일에 발송한 「起義討倭賊檄」가 『중봉집』 권13에 실려 있다.) 4차 모병은 1592년 7월 홍주·공주·정산·온양 등지에서 도모하여 1,600여 명 가량이 모집되었다.(7월 5일에 작성된 「稿軍誓辭」가 『중봉집』 권13에 실려 있다.) 모집한 의병진을 이끌고 8월 1일 청주 방어사 이욱이 이끄는 관군과 승장 영규가 이끄는 승군과 연합하여 청주성 전투를 벌였고 8월 2일에 청주성을 탈환하였다.(8월 1일에 발송된 「勤王時指路文」과 「告諭本國人爲倭所擄君文」이 『중봉집』 권13에 실려 있다.) 이후 조헌은 倭僧 玄蘇와 조선의 승려들에게 각각 8월 10일자로 격문 두 편을 발송하였고, 8월 18일에 7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금산 전투에서 싸우다 전

7) 『朝鮮王朝實錄』, 『宣宗大王實錄』 卷29, 「宣祖25年 壬辰 8月 癸丑」.

사하였다.

박춘무의 경우, 1592년 7월 4일 향리인 청주 복대리에서 의병의 출정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모집한 1,000여 명의 의병을 데리고 청주성 수복 전투에 참여하였으니, 『화천당집』 卷1에 실려 있는 「檄文」이 모병할 당시의 격문이다. 이 격문은 박춘무의 종사관으로 활약했던 이시발의 『碧梧遺稿』에도 실려 있다. 청주성 탈환 후에 박춘무는 금강 이북을 지키기 위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진천으로 가서 전세를 안정시켰다.

이상의 정황을 바탕으로 청주성 전투와 관련한 격문 자료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청주성 전투 관련 격문

no.	저자	작성일자	제목	所載	비고
1	조헌	1592.06.12	「起義討倭賊檄」	『重峯集』, 卷13 『亂中雜錄』1, 壬辰上	조경남의 『난중잡록』에는 7월 4일로 나옴.
2	조헌	1592.07.05	「稿軍誓辭」	『重峯集』, 卷13	
3	조헌	1592.08.01	「勤王時指路文」	『重峯集』, 卷13	
4	조헌	1592.08.01	「告諭本國人爲倭所擄君文」	『重峯集』, 卷13	
5	조헌	1592.08.01	「告諭日本從行士卒等文」	『重峯集』, 卷13	
6	박춘무	1592.07.	「檄文」	『花遷堂集』, 卷1 『碧梧遺稿』, 卷6	이시발의 『碧梧遺稿』에는 「仁義陣檄(壬辰義兵將朴春茂起兵時)」으로 나옴.

Ⅲ. 청주성 전투 격문의 논리와 수사

檄文은 檄移通文·軍令·布告文·曉諭文·招諭文 등 軍用 文서를 총칭하는데, 이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 하에서만 지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문학적 갈래이다.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창작력을 일시에 활성화하여 작성해야 하는 데다, 선포·억압·회유·설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명한 논리와 효율적 수사를 갖추어야 하기에 작자의 분명한 이념과 뛰어난 문예 감각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격문의 내용은 적군에 대한 비난의 병 모집·군수품 모집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대체로 독자의 행동 변화를 목표로 삼아 설득의 수사를 구사하면서 특유의 미감을 형성한다. 이것이 격문이 실용문인 동시에 문학문이 되는 까닭이다. 격문이 의병에 가담한 각 주체의 행동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효용과 적용의 실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지만, 격문이 의병이 결집하고 유력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매개와 동력이 되었음은 상식적으로 유추해볼 수가 있다.⁹⁾ 본장에서는 조헌과 박춘무의 격문을 중심으로 격문에 드러난 항쟁의 논리와 선동의 기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항쟁의 正當性 천명

趙慶男의 『亂中雜錄』에 의하면 1592년 7월 4일에 전 도사 조헌은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기 위해 나섰다. 조헌은 충청북도 옥천 사람으로 귀양지에서 옥천으로 돌아와 있던 중에 서울이 함락되고 임금이 서도로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통곡하고 분주히 의병을 모집하여 당일 공주에서 거병의 깃발을 들었는데, 모집에 응한 자가 1,000여 명이었으니 당시 조헌이 격문을 손수 초하여 3도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난중잡록』에서는 이때 만들어진 격문이 「起義討倭賊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¹⁰⁾ 『중봉집』의 「起義討倭賊檄」에는 '만력 26년 6월 12일'에 發布되었다는注가 달려 있

8) 격문의 정의와 내용·형식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박정민(2020), 15~23면. 참조.

9) 선언서가 운동 확산의 매개물이 된다는 점은 한말 선동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천정환(2009)에서는 한말 독립운동의 선언서와 통지문을 매체로 한 '방문'과 '구술'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운동이 확산되는 데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0) 趙慶男, 『亂中雜錄』 卷1, 「壬辰上」.

으니, 앞서 이른바 제3차 모병기에 작성된 것이라 사료된다.

“前提督官 銀川 趙憲은 八道の 문관 무관 동료와 은거하고 있는 동지와 승려, 백성의 父老, 호걸들에게 공경히 고한다.”¹¹⁾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격문의 冒頭에서는, 조헌이 전국 단위의 신분을 막론한 모든 계층의 백성을 독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起義討倭賊檄」의 본문은 起兵의 핵심 논리인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자.

하늘과 땅의 큰 덕을 ‘生’이라고 하니 만물이 각기 제자리를 얻게 할 것을 생각하며, 귀신과 사람이 함께 미워하는 것은 賊이니 우리들의 원수가 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맹세하자. 모두들 보고 들으면 거의 분개하고 미워하리라.¹²⁾

조헌이 「起義討倭賊檄」에서 항쟁의 정당성으로 천명한 명제는 『周易』 「繫辭傳 下」에서 말한 “하늘과 땅의 큰 덕을 ‘生’이라고 한다.[天地之大德曰生]”라는 것과, “만물이 각기 제자리를 얻게 할 것을 생각한다.[思萬物各得其所]”라는 것이다. 왜적의 침략은 ‘生’을 위협하고 만물이 저마다 누려야 하는 제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 ‘賊’이니, 이는 귀신과 사람이 모두 미워하는 바라고 규정하였다. 조헌은 이어서 ‘賊’을 ‘원수[仇]’로 상정하고 그들이 살아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섬멸하기를 함께 맹세하자고 하며 동조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만행을 보고 듣는다면 누구나 분개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하면서, 독자의 공분을 각성시키고 격발시켰다. 조선의 인민과 만물을 파멸시키고 조선의 영토를 유린하여 조선에서 仁의 덕을 해치고, 이른바 ‘得其所在’의 행복을 앗아간 공동의 원수로 왜적을 성토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적인 원한이 될 뿐만 아니라, 대의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노정하였다.

11) 趙憲, 『重峯集』 卷13, 「起義討倭賊檄」.

12) 전게서.

한편 조현의 22구의 祭文 형식이지만 내용은 대중을 격동하기 위한 의도를 품고 있는 「起義時祭熊津龍堂文」에도 항쟁의 정당성은 강조되어 있다. 이 글은 조현이 1592년 7월 4일에 起義할 때 熊津의 龍堂에 제사 지내기 위해 지은 글인데, 趙慶男의 『亂中雜錄』에서는 이 날을 조현이 거병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龍堂은 '熊津祠'로도 불리는 사당이니,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웅진 남쪽 기슭에 있다. 신라 때에는 西瀆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조에서는 南瀆으로 삼고, 中祀로 정하여 봄 가을에 향과 축문을 내려서 제사하게 한다."¹³⁾라고 하였다. 주목할 대목은 조현이 유가적 명칭인 熊津祠를 토속 신앙의 명칭으로서 당굿을 하는 장소인 '龍堂'으로 일컫고 있다는 점이다. 의병 모집과 활동이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격동시켜야만 가능한 일임을 상기한다면, 조현이 백성들에게 당굿을 하는 장소로 공인된 용당에서 기의를 고하는 일 자체가 매우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하겠다. 더구나 그곳을 유가적 명칭 대신 토속적 명칭 그대로 사용한 것은, 주요 설득 대상인 백성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내재한 반증이라고 보인다.

「起義時祭熊津龍堂文」의 내용을 살펴보자.

蠢茲倭奴	꿈틀거리는 왜노가
讐我大邦	우리 대국을 원수로 삼아
潛師越海	몰래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突入三江	한강까지 쳐들어 왔습니다 ¹⁴⁾

제1~제4구에서는 일본을 '꿈틀거리는 왜노'라 비하하였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원수로 삼아 몰래 바다 건너 한강까지 쳐들어왔다고 하면서 임진왜란을 명분 없는 비열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였다.

重關失險

궁궐은 험준함을 잃었지만

13) 李荇 等撰, 『新增東國輿地勝覽』, 「忠淸道 公州牧 熊津祠」.

14) 趙慶, 『重峯集』 卷13, 「起義時祭熊津龍堂文(壬辰七月初四日)」.

控禦無人	방어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萬姓魚肉	백성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七廟灰塵	종묘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干戈三月	전쟁이 일어난 지 석 달 만에
龍輿遠狩	어가가 파천을 하니
一國倫紀	한 나라의 윤리와 기강이
喪亂靡救	사라지고 어지럽혀져 구제할 수 없습니다 ¹⁵⁾

제5~제12구에서는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이 처참하게 유린된 총체적 상황을 간략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궁궐이 함락되었는데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고 백성들이 무참히 살육되고 종묘는 불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으며, 임금도 도성을 떠나 파천하였기에 국가의 기강이 사라져 구제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噫我三韓	아, 우리 三韓은
禮義素明	예의가 본래 밝았고
箕範攸傳	기자의 흥범이 전해지는 곳으로
嶽瀆以寧	강산이 편안하였는데
今尙此賊	지금 이 왜적으로 하여금
恣意殺戮	마음대로 살육하게 하니
斯民何罪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逢此荼毒	이런 害毒을 겪게 합니까
茲有義士	이에 義士들이 있어
同願討賊	왜적을 토벌하기를 함께 원합니다 ¹⁶⁾

제13~제22구에서는 조선이 본래 예의가 밝고 기자의 규범이 전해져서 평화로운 문명의 나라인데 왜적이 제멋대로 무고한 백성들을 살육하도록 만들었다고 龍堂의 신에게 힐문하였다. 그리고 義士들이 일어나 왜적을

15) 전게서.

16) 전게서.

토벌하겠다는 의지를 고하였다.

龍堂은 발복기원을 하는 곳이기에 그 祭文은 왜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하였으나, 중봉은 침략의 부당성과 전황 및 유린된 종묘사직과 백성들의 참상, 조선이 문명의 평화로운 나라로서 야만적인 왜노에게 결코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창의를 고하였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신에게 고유하는 제문이지만 실제로는 대중들에게 침략의 부당성과 기병의 정당성을 發布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또한 의병장이 대중을 격동하고 선동하기 위하여 제문처럼 형식적 고정성이 강한 문체를 활용하고 있는 일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박춘무는 항쟁의 정당성을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가만히 생각건대,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예기』의 큰 의리이고, 9대의 원수도 반드시 갚으려 하는 것이 『춘추』의 아름다운 말이다. 임금을 위하여 원수를 제거해야 하니, 臣民으로서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¹⁷⁾

위의 글은 박춘무 「檄文」의 冒頭이다. 박춘무는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예기』의 의리와 ‘원수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춘추』의 말을 인용하면서, 임금을 위한 원수는 신민으로서 갚아야 하는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기』 「曲禮」에 서는 “아비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는다.”¹⁸⁾라고 한 내용이 있고, 『예기』 「檀弓」에는 子貢이 공자에게 “부모를 죽인 원수는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거적을 깔고 방패를 베개 삼아 자며 벼슬하지 않고 그와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으며, 언제나 병기를 품고 다녀 시장이나 조정에서 만나면 兵器를 가지러 되돌아가고 싸운다.”¹⁹⁾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17) 朴春茂, 『花遷堂集』 卷1, 「檄文」.

18) 鄭玄 註 孔穎達 疏, 『禮記註疏』, 「曲禮上」.

19) 鄭玄 註 孔穎達 疏, 『禮記註疏』, 「檀弓上」.

또 『춘추』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춘추 시대 齊襄公이 紀侯의 참소로 주나라 천자에게 烹刑을 당했는데, 9대 뒤에 齊襄公이 그에 대한 복수를 하여 紀나라를 멸망시켰다. 이에 대해 『춘추』에서는 “紀侯가 영원히 그 나라를 떠났다.[紀侯大去其國]”라고만 기록하고 멸망시킨 제 양공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니, 이에 대해 『춘추공양전』에서 “『춘추』는 어진 이를 위해 避諱한다. 그러면 襄公에 대해 무엇을 어질게 여겼는가? 원수를 갚은 점이다.”²⁰⁾라고 하였다.

박춘무가 『예기』와 『춘추』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모두 원수에 대한 ‘復讐’의 설명이다. ‘복수’는 린치에 해당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미덕이었으며, 고대의 문헌인 『예기』와 『춘추』에 그와 같은 관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박춘무는 ‘복수’를 항쟁의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조현에 비해 훨씬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의 인용문은 박춘무 「檄文」의 일부분이다.

근래 국운이 중도에 쇠락하고 王業은 곤란한 일이 많은데, 하얗은 바다 섬의 조무래기 오랑캐가 부화시켜 키워준 큰 덕은 생각지 않고 이리의 이빨을 몰래 갈아 복종치 않고 공경치 않는 마음을 쌓으며 살무사의 독을 몰래 뽑어댄 것이 하루 아침저녁의 일이 아니었다. 비룡마와 공작새로 공물을 바치는 의식을 거짓으로 행하고, 步光劍과 屈盧矛로 虞나라를 취할 계책을 실행하였다. 궁중의 두 뜰에서 干羽舞를 추니 어찌 순임금이 밭을 복종시킨 덕화가 없었던가? 九鼎의 경중을 몰어도 王孫滿처럼 楚나라를 물리칠 사람이 없으니 개탄스럽다. 요사한 기운이 바다에 불어나니 해를 찌르는 흉악한 칼끝이 비로소 휘둘러지고, 살벌한 기운이 하늘을 감싸니 하늘을 찌는 병기의 위세가 몹시 치열하다. 禹임금의 나라에서 사나운 고래를 날뛰게 하고, 堯임금의 봉토에서 개와 양을 달리게 하였다.²¹⁾

20) 『春秋公羊傳』, 「莊公4年」.

21) 朴春茂, 『花遷堂集』 卷1, 「檄文」.

박춘무는 침략자 왜국의 비열함을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들을 짐승에 비유하였다. 조선이 일본을 도와준 것은 '알에서 부화시켜 키워준 덕'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침략 준비와 야욕은 '이리가 몰래 이빨을 갈아대며 불경한 마음을 쌓았다.', '살무사가 독을 뽑어 댄다.'라고 卑下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하가 단순한 감정적 격앙의 流露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귀한 동물을 공물로 바치며²²⁾ 거짓으로 복종하면서 침략의 야욕을 숨겼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월나라의 句踐이 월나라에서 생산되는 날카로운 무기인 步光劍과 屈盧矛를 오나라에 바쳐 신임을 얻었다가 이 무기들을 가지고 오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 설복력을 높였다. 이어서 일본의 교활한 '征明假道'의 논리를 비난하였으니, '虞나라를 취할 계책'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춘추 시대에 췌나라가 虞나라에게 虢나라를 칠 테니 길을 좀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췌나라를 멸망시키고 돌아오는 우나라까지 멸망시켰다는 고사를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박춘무는 명나라를 치러가는 길을 빌려 달라는 일본의 이른바 '征明假道'의 논리가 대륙 진출의 야욕을 숨긴 교활한 핑계임을 비판한 것이다.

"궁중의 두 뜰에서 干羽舞를 추니 어찌 순임금이 苗를 복종시킨 덕화가 없었던가?"라는 대목과 관련하여서는, 『서경』 「大禹謨」에 "30일 동안 有苗의 백성들이 명을 거역하자, 益이 禹王을 도와 '德은 하늘을 감동시켜 멀어도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자만하면 덜어짐을 부르고 겸손하면 더함을 받는 것이 바로 天道입니다.……지극한 정성은 神明을 감동시키니, 하물며 이 有苗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禹임금이 善言에 절하며 '아! 네 말이 옳다.'라고 하고는 回軍하고 군대를 거두자, 순임금이 마침내 文德을 크게 펴서 어 방패와 깃 일산으로 두 뜰에서 춤을 추셨는데, 70일 만에 有苗가 와서 항복하였다."²³⁾라는 고대의 역사가 실려 있다. 舜임금이 禹王에게 명하여

22) 李廷馨, 『東閣雜記』 「本朝睿源寶錄」에 "선조 23년인 1590년에 일본국 平秀吉이 공작새 한 쌍을 바쳤는데 임금이 받아서 얼마 후에 南陽 大部島에 놓아 주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23) 『書經』, 「虞書大禹謨」.

有苗를 정벌하다가 여의치 않자 文德으로 그들을 심복시켰다는 역사적 경험과 같이, 조선은 완악한 일본을 무력으로 복종시키기보다는 문덕으로 복종시키기 위한 德化 정책을 펼쳤건만 일본은 오히려 침탈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옛날의 王孫滿처럼 물리칠 사람이 없다고 개탄하였으니, 이는 『春秋左傳』 「宣公 3년 봄」에 초나라가 陸渾의 오랑캐를 정벌하고 洛水 가에 이르러 주나라의 경계선에서 觀兵하자 주나라 定王이 왕손만으로 하여금 초나라 군주를 위로하게 하니, 그가 왕손만에게 천자를 상징하는 九鼎의 크기와 무게를 물었다. 이와 같은 초나라 왕의 도발에 대해 왕손만이 “천자가 되는 것은 덕에 달려 있지 구정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침탈의 야욕을 꺾었던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즉 박춘무는 조선을 문명의 나라로 규정하여 우임금의 나라요임금의 봉토에 비유하는 한편, 일본 역시 사나운 고래개양과 같은 짐승으로 卑下하였다. 이러한 中華와 짐승에의 비유는 조선과 왜를 현격히 구분 지음으로써 조선을 도덕적으로 우월한 문명국가로 규정짓는 구실을 한다. 침략전을 자행하는 일본을 짐승으로 비하하고 조선을 中華와 대등한 혹은 동일시되는 문명의 나라로 대조하는 비유, 그리고 침략전의 부당성을 확인시키는 역사 고사와 당시의 실제 상황의 交織은 대중에게 항쟁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설복력을 제고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 煽動의 기술과 수사

『전쟁론』의 저자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동²⁴⁾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전쟁시 작성되는 격문 또한 필자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독자에게 굴복과 협조를 종용하는 글이므로, 격문은 언어를 매개로 한 또다른 전쟁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선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격문에는 독자를 설

24)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저(2019), 60면. 참조.

복시킬 만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비해야 하며, 전술에 비길 만한 언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아래의 글을 살펴보자.

지금 이 잔악한 왜적의 소행은 짐승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 백성들을 살육함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연물을 모질게 해침에 가옥과 식량을 모두 불살랐다. 길에서 아나네 한 명을 만나면 사내 열 명이 다투어 淫行을 하니, 이는 바로 하늘 아래 수많은 오랑캐들도 하지 않고 지각이 없는 짐승도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다.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어 비록 감히 막는 자가 없지만 천지 산천의 귀신이 모두 은밀히 주벌할 것을 의논하고 중국과 오랑캐들이 모두 드러내 처형할 것을 생각하니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잠시 목숨이 붙어 있는 사이에 우리 백성들을 죽일 수는 있어도 天定人勝의 날에 그 죄를 자복할 것이다.²⁵⁾

위의 인용문은 조헌이 왜적에게 사로잡힌 조선 포로를 대상으로 쓴 「告諭本國人爲倭所擄君文」의 일부이다. 조헌은 포로들이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잔인함, 조선의 자연을 훼손하고 백성들의 가옥과 식량을 소멸시키는 무도함, 정절이 중요시되는 조선사회에서 강제로 여성을 범하는 패륜적 행동 등 왜적의 악랄한 행태를 일일이 열거하였다. 조헌은 왜적의 沒廉恥는 짐승보다 못한 것이라고 하고, 이어서 왜적이 당장은 방자하게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지만 결국에는 귀신의 「陰誅」과 천하 사람들의 「顯戮」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니 지금은 왜적이 처해 있는 상황은 '죽음을 앞두고 잠시 목숨이 붙어 있는 사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드러내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땅속 귀신까지 은밀히 주벌하려고 의론할 것이다. 비록 잠깐 동안 숨이 붙어 있으나, [不唯天下之人皆思顯戮 抑亦地中之鬼已議陰誅 縱饒假氣遊魂.]"²⁶⁾라고 한 「檄黃巢書」의 문구와 매우 흡사하다. 왜적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곧 꺼질 신세이고, 하늘

25) 趙憲, 『重峯集』 卷13, 「告諭本國人爲倭所擄君文」.

26) 崔致遠, 『桂苑筆耕集』 卷11, 「檄黃巢書」.

의 심판을 받는 天定人勝의 날이 결국 도래할 것을 「檄黃巢書」의 표현을 빌어 강조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天定'은 天命이 정해진 것을 뜻하고 '人勝'은 대중의 힘이 天命을 어기는 것을 뜻하니, 이 말은 『사기』 「伍子胥列傳」에서 申包胥가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지만, 천명도 정해지면 사람들을 능히 격파한다.[人衆者勝天, 天定亦能破人.]"라는 말을 인용하여, 초나라 卞王의 시신을 매질하여 복수한 벗 오자서의 난폭한 행동을 나무란 데서 유래하였다. 곧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한때의 난폭한 행동으로 천명을 어길 수 있을 지라도 하늘 역시 화를 내려 난폭한 자들을 징계한다는 논리이며, 그 주벌의 대상은 물론 왜적이다. 이처럼 조현은 왜적에게 사로잡힌 포로들의 利敵행위를 막고 아군에게 협력하기를 종용하기 위해서, 왜적의 악행을 열거하고 종말을 예견하였다.

남의 자식과 아내를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도 오히려 和氣를 손상하여 재앙을 이룬다 하거늘, 백성의 집안을 도륙하고 백성의 재산을 불태우니 어찌 惡이 차서 죄를 부르지 않겠는가? 백성의 원통함은 날로 쌓이고, 義士의 분함은 달로 더해간다. 하물며 도망가 숨은 臣妾을 수용함이 탐욕스러운 짐승보다 심함에랴! 사람의 꼴을 지녔으면 양심이 있을 텐데 측은해 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늘의 명령을 받들면 반드시 천벌을 奉行하니, 어찌 마구 돌진하여 사나움을 과시하는 자를 무서워하겠는가? 전쟁을 잘하는 자가 최상의 형벌을 받으니 먼저 白起가 사형을 받았고, 죽이길 좋아하는 자가 大辟을 범하니 뒤에 黃巢가 섬멸되었다. 그러므로 듣건대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이 적을 드러내 죽일 것을 생각하고, 또한 반드시 산천 귀신이 이미 추악한 무리를 은밀히 誅伐하기로 의논했을 것이다.²⁷⁾

윗글은 「起義討倭賊檄」의 일부이다. 여기에서도 조현은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일 조선인을 살상할 뿐더러 한 가문을 몰살시키고 재산을 분탕시키는 왜적의 악행을 열거하였다. 또한 조선의 평화를 깨뜨리고 가정을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백성을 변절자로 만들어버리는 왜적의

27) 趙憲, 『重峯集』 卷13, 「起義討倭賊檄」.

악행은 仁과 忠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역설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왜적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족을 잃은 백성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이니, 이에 백성들과 義士들의 원한과 분통에 공감하면서, 적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을 호소력 있게 이끌어낸 어조가 돋보인다.

이어서 조헌은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왜적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白起와 黃巢의 일을 예시하였다. 白起는 전국 시대 秦나라의 명장으로, 趙나라와의 전투에서 속임 전술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격파한 전술의 대가이다. 秦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할 당시 조나라의 명장 廉頗가 진나라를 상대하여 수비를 위주로 장기전을 벌였는데, 진나라에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反間計를 써서 염파 대신 조괄을 장수로 삼게 만들었다. 조괄은 병법을 책으로만 익혀 전쟁을 쉽게 생각하다가 진나라 장수 白起에게 죽었고, 그의 40만 군대도 長平에서 생매장을 당하였다. 이후에 진나라가 조나라 수도 邯鄲을 공격하려 하자 백기는 멀리 다른 나라의 수도를 치는 것이 어렵고 제후들이 협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병을 핑계로 출전하지 않았는데, 戰況이 불리해지자 秦昭王이 자주 백기에게 종군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백기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진 소왕은 그를 사졸로 격등시켜 陰密로 보내고 백기가 성문을 10리쯤 나갔을 때 칼을 하사하며 자결을 명하자, 백기는 “조나라 군사 40만을 묻어 죽였으니 죽어 마땅하구나.”라고 하면서 자결하였다.²⁸⁾ 한편, 黃巢는 唐나라 말기 僖宗 때 일어난 농민 반란의 우두머리이다. 王仙芝가 난을 일으키자 그를 따르다가, 그가 죽은 뒤에 남은 무리를 이끌고 878년에 중국 땅 대부분을 공략하였다. 한 때 수도 長安을 점령하여 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국호를 大齊라 하였으나, 그 뒤 884년에 관군에게 패하여 자살하였다.²⁹⁾

이들은 모두 한때 전쟁에서 능력을 발휘한 인물들이지만 많은 인명을 살상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의 종말을 맞이하였다. 조헌은 백기와 황소의 用事를 통해 왜적은 人民과 鬼神이 모두 미워하고 주벌하는 대상

28) 『史記』 卷73, 「白起列傳」.

29) 『新唐書』 卷225, 「黃巢列傳」.

이니, 그들의 패망은 예정된 결말임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격문에서는 역사 전고가 도덕과 문명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쟁의 결말을 제시하는 龜鑑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격문의 전고는 격문의 그 작성 의도와 결부되어, 의병의 모집·참전·협조 등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독자로 하여금 적개심·복수심 등의 긍정적 심리와 자궁심·용기·희망 등의 긍정적 심리를 격발시키는 매개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격문에서 활용하는 用事들은 비단 흘러간 과거의 기억에 그치지 않으며, 현실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는 계제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격문의 선동력의 핵심은 설득력 있는 논리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문장의 기술적 측면도 절대 경시할 수 없다. 아래에 제시된 인용문을 한번 살펴보자. 서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병기하도록 한다.

合三道之力 以解危急 此維其時	삼도의 힘을 합하여 위급을 해결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때요
罄一生之才 弘濟艱難 當及是日	일생의 재주를 다 바쳐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 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일이다
願我同志之士	뜻을 같이한 우리 여러 선비는
惜此難得之幾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소중한 여겨서
周曉耄耄之武夫	용감한 무인들과 결속하여
期續岌岌之大命	위급한 國脈을 이어나가도록 하자
張我弓挾我矢 先射拔都之喉	우리의 활을 당기고 우리의 화살을 끼워서 먼저 阿只拔都의 목구멍을 쏘고
稱爾戈比爾干 繼斫拐子之足	그대의 창을 들고 그대의 방패를 나란히 하여 拐子馬의 발을 연이어 찢는다면
則 賊自驚散之不暇	적은 절로 놀라 흩어지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며
民應還集之有期	백성은 응당 도로 모일 시기가 있을 것이다
芸田者庶遂晚農	밭을 매는 자는 늦은 농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伐木者求集煨舍	나무 베는 자는 불에 탄 집을 모으고자 하며

廓開湖嶺之一路	호남과 영남의 한 길을 시원스레 터서
永通商旅於四方	장사꾼들이 사방에 길이 통할 것이다
迎聖主於三巴 當下哀痛之教	巴蜀에서 성주를 모셔오면 마땅히 애통한 교서가 내려질 것이고
明舜朝之四目 繼進藥石之言	순 임금 조정의 四目を 밝히면 藥石 같은 말이 계속 진언될 것이니
昔日之弊瘼自除	옛날의 폐단이 절로 제거되고
昭代之恩澤可究	태평시대의 은택을 궁구할 수 있을 것이다
是知致力於一戰	이에 알겠노니 한 번의 전투에 힘을 다해야만
乃爲垂裕於後昆	후손에게 복을 끼치리라 ³⁰⁾

윗글은 「起義討倭賊檄」의 뒷부분이다. 조현은 지금이 국가의 存亡을 다투는 위급한 때임을 자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을 물리치자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전투에 힘을 보태 이 땅에서 왜적을 물리치면 백성들에게는 회복된 일상과 더 나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며, 파천한 御駕는 돌아오고 조정의 言路를 열어 국가의 고질적 폐단이 개선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미래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독자로 하여금 ‘한 번의 전투에 힘을 다’하게 하기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장의 구법과 수사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글은 古文體로 지어졌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앞뒤 2구씩 對를 이루고 있는데, ‘則’자 한 글자를 제외하고는 字數가 완전히 일치하는 점, ‘之’‘者’‘於’ 등 허사를 활용한 날자 대우가 이루어지는 점, ‘三道’와 ‘一生’‘一路’와 ‘四方’‘三巴’와 ‘四目’ 등 숫자 대우가 이루어지는 점, ‘我’와 ‘爾’‘赳赳’와 ‘岌岌’‘驚散’과 ‘還集’‘不暇’와 ‘有期’ 등 단어 대우와 의미 대우가 세심하게 포진되어 있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구성을 의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字數의 통일과 어휘의 대우 및 통사구조의 일치 등 독자로 하여금 일정한 호흡과 지속적인 긴장감을 제공하며, 정연한 문장의 반복은 격동과 선동의 고조를 독려한다. 또한 ‘阿只拔都’

30) 趙憲, 『重峯集』 卷13, 「起義討倭賊檄」.

‘拐子馬’ ‘巴蜀’ ‘四目’ 등 2구에 걸쳐 의미 대우를 이루고 있는 역사전고는 단선적이고 반복적인 형식과 풍부한 내용적 함의의 교차를 통해 설복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의도된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련된 어휘의 사용과 질서정연한 문장의 배치는 격문에 긴장감을 부여하여 선동력을 증강시킨다. 격문은 전쟁시에 작성하는 문체이고, 독자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원하는 행동을 실천하게 만들려는 목적성이 짙은 문체이다. 독자를 선동하여 행동 변화를 촉구하려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비된 논리를 효과적인 수사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격문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정연한 문장의 배치는 이념과 논리의 명확한 전달을 돕기 위한 고도의 언어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 의식 구조 및 논리적 이념 구조는 반복적이고 정련된 문장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에 구현되는 긴장된 어세는 독자로 하여금 전쟁 상황에 대한 각성과 환기를 불러일으킨다.

IV. 결론

문학 공간은 필자의 의식과 이념을 표출하는 個人的 공간이자, 동시에 교감을 통해 독자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력을 끼치는 待人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격문은 戰時에 창작되는 문체로서 특히나 개인의 구국이념과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강렬한 정신적 대맥이 독자의 마음을 격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의병의 지도자 조헌과 박춘무의 격문을 살펴보았다. 그들 격문이 가지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항쟁의 명분과 의의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진술하였듯 청주성 전투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陸戰에서 최초의 승리를 이 끌었다. 이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붕괴되던 관군 주도의 국가방어태세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절실함, 그것이 청주성 전투의 격문에는 여실히 녹아 있다. 침략 전쟁의 부당성과 왜국의 무도함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의병장의 역사의식과 맞물려 격문에 형상화됨으로써 민중에게 항쟁의 명분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즉 仁義의 의리를 중시하는 조선을 침략한 왜국의 무도한 만행을 고발함으로써 대중들의 의기를 격발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둘째, 표현적 측면에서 임란기 청주 지역의 격문에는 선동과 설득의 수사가 두루 구비되어 있다. 격문은 선전과 선동의 목적을 지니는 글로서 명백한 질서 의식과 강렬한 수호 의지를 표출하는 글이다. 이에 격문은 필자의 의식에 내재된 결연한 의지를 독자들에게 이양시키고, 그들의 가슴속에 구국의 열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도록 설득시킨다. 앞장에서는 조헌과 박춘무의 격문을 통해 설득과 참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원된 격문의 설득의 수사를 확인하였다. 특히 역사 전고의 표현을 빌어 깊은 인상을 남기는 用事의 수법과 반복과 정연한 구조의 설정을 통한 긴장감 고조의 수사법 등은 격문의 선동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지극히 의도된 설정이다. 이러한 점 등에서 볼 때 격문은 독자의 격정을 유도하는 방아쇠 혹은 불쏘시개가 되기를 희망하는 문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주성전투 관련 격문은 실천적 지식인들의 이념과 의식을 반영한 창작물이자, 그들의 창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매개물이며, 국가의 위난을 타개한 조선인들의 전리품이니, 이러한 점에서 격문은 단순한 문학 작품 이상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격문의 가치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단연 참전하여 목숨 바쳐 싸운 수많은 민중의 숭고한 희생일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기한 결출한 의병장들의 위대한 지성과, 이름은 남기지 못했어도 뜨거운 혈투로 조선의 국권을 지켜낸 역사인들의 거룩한 노고에 그 수혜를 받는 후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는 격문에 드러난 의병장들의 구국 이념이 어디에서 연원한 것인지, 그 사상의 계승 발전 양상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는 연구가 속개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書經』.

『春秋公羊傳』.

『禮記註疏』.

『史記』.

『新唐書』.

『朝鮮王朝實錄』, 『宣宗大王實錄』. (한국고전번역원DB 제공)

朴春茂, 『花遷堂集』. (국립중앙도서관본, 청구기호 古朝44-가42)

李廷馨, 『東閣雜記』. (한국고전번역원DB 제공)

李荇 等撰, 『新增東國輿地勝覽』, 1611. (국립중앙도서관본, 청구기호 한貴古朝60-3)

趙慶男, 『亂中雜錄』. (한국고전번역원DB 제공)

趙惠, 『重峰集』, 한국문집총간 54, 民族文化推進會, 1990.

崔致遠, 『桂苑筆耕集』. (한국고전번역원DB 제공)

곽호제(1998), 「임진왜란기 청주성전투의 의병장 연구」, 『충남사학』 제10호, 충남대학교사학회, 53~79면.

김강식(2010), 「조선 후기 청주 순천박씨 가문의 충의 정신과 의병 활동」, 『우암논총』 제3호,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107~138면.

박병현(1992), 「중봉 조현의 학문과 시세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철(1996), 「중봉 조현의 의병활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민(2020), 『전쟁과한문화 I』격동의 산문, 임진왜란기 격문』, 보고서.

유동호(2018), 「임진전쟁 초기 청주지역 의병진의 성격과 활동-박춘무와 조강 의병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66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5~243면.

주용성(2009), 「중봉 조현의 실천철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정환(2009), 「所聞訪問新聞概文: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국문학연구』 제36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09~154면.

최영성(2011), 「중봉 조현의 의리사상과 실천정신」, 『유교문화연구』 제18호,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87~314면.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1997), 『청주시지』, 청주시.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저(2019), 『전쟁론』, 김만수 역, 갈무리.

한기동(1998), 「중봉 조현의 의병활동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Ideology of Raising an Righteous Army and Literary Characteristics in the Manifesto of the General of the Righteous Army in the Battle of Cheongju Castl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Park, Jeong-min*

One of the most remarkable facts in the history of Cheongju is the recapture of Cheongju Castle, which was captured from the Japanese invader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general of the Righteous Army Cho Heon(趙憲, 1544~1592) and Park Chun-mu(朴春茂, ?~?) were in the center of it. These two men studied under Tojeong(土亭) Lee Ji-ham(李之菡, 1517~1578), they had greater value in that they realized the ideology of Confucianism through the practice of saving their country. As a Confucian scholar, the reason why they were able to recapture Cheongju Castle where the regular army was taken away, by organizing a righteous army, was because of the Confucian ideology called Sahak(斯學) and the solidarity of the Confucian scholars called Samun(斯文). And the means to concentrate and organize the dispersed Confucian scholars was manifesto.

Focusing on the manifesto of Cho-Heon and Park Chun-mu, this paper considered the ideology of the struggle and the strategy of the instigation which was revealed in the manifesto.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ontent, the justific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struggle are particularly emphasized. The desperation that could no longer look on idly the government army-led national defense posture, which had been collapsed helplessly, is clearly reflected in the manifesto of the Battle of Cheongju Castle. The injustice of the aggressive war and the Japanese military's cruelty were interlinked with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general of the Righteous Army with academic knowledge, then it was formed in the manifesto, so it presented the justification of the struggle to the people. Through this, the consolidated non-regular troops were finally

* Lecturer of the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ubac412@hanmail.net.

able to achieve their first victory in the land warfare since the outbreak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Second, in terms of expression, the rhetoric of instigation and persuasion was provided in the manifesto of Cheongju are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manifesto is a writing that has the purpose of propaganda and instigation, expressing clear sense of order and strong will to protect. In this regard, the manifesto devotes the determined will inherent in author's consciousness to the readers, and instills the aspiration and courage of the national salvation in their hearts to persuade them to change their behavior. The Yongsa(用事) method of making a deep impression using the expression of historical precedent and the rhetoric of increasing tension through repetition and setting of an orderly structure are extremely intended settings to maximize the instigation of the manifesto.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study paying attention to the literary features of the manifesto,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war lit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Manifesto, Instigation, War Literature,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Battle of Cheongju Castle, Cho Heon(趙憲), Park Chun-mu(朴春茂).

투고일 : 11월 3일, 심사완료일 : 12월 7일, 게재확정일 : 12월 22일

